

국회법사위 평등법 공청회 강행 비판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 국민 앞에 사과 촉구,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국회 법사위 제1소위가 지난 5월 26일(수) 평등법 공청회를 연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 로프에서도 정중도 없이 평등법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이는

법사위가 찬성자들만의 논리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는 탈영지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한교총은 또 '민중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초 상대당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추진하지 않았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도 밀집 반대 공청회를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반대하는 다수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가나선교회, 서울신학대학교에 장학금 전달

2020년부터 1천5백만원 후원



가나선교회(회장 박정복 목사)가 지난 5월 18일(수) 서울신학대학교(영덕형 총장)에 학교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 가나선교회는 2020년에 박정복 목사(한우리교회), 송철용 목사(새선교회), 이종완 목사(대평교회), 지용운 목사(한빛교회) 등

기성 원로목사들이 함께 국내 신교와 교회의 성장, 지도자 양육을 위해 만든 선교회다. 또한 '나눔'이 가치 받았으니 가치 주며, '30'라는 말을 붙고 조인 없이 부르신 것에 믿고 나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가나선교회는 2020년부터 장학금으로

년 1천5백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이날 박정복 목사는 "나눔은 환경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미래 목회자들이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으며 앞으로 해나감을 위해 일하고 앞장서서 나아가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덕형 총장은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설계하시고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한다"며 "보여주시고 보내주시는 가나선교회의 사랑을 발로한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이렇게도 사랑해주시고 기도 해주심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미래 목회자들을 해나길 말씀으로 열심을 다해 양육하겠다"고 전했다.

나사렛성결회, 감독 이·취임식 예배 드려

제8기 윤문기 감독, "교단 발전에 헌신하겠다"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한국총회)는 제7·8기 총회감독 이·취임식 감사예배를 지난 5월 22일(주일) 오후 4시 경기도 평택시 안중로 소재 안중-나사렛교회(윤문기 목사)에서 전국 각 지역 교회 목사와 교회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렸다.

이날 한국총회 7·8기 총회감독 이·취임 감사예배는 총회 총무 이용주 목사의 사회로 예경교회 정경화 목사의 대표기도, 평택교회 황규민 목사의 성경봉독(시 18:1, 고전 15:3), 안중-나사렛교회 김달진전담의 찬양 후 한 선공동체 대표 김석년 목사의 '제기', 헌사 되는 감독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다.

교단이 인수 인계에서 제7기 총회감독 신민규 목사가 제7기 총회감독 윤문기 목사에게 교단기를 전달한 후, 총회감독 류두원 목사(나사렛교회 원로목사)의 기도 인도로 이영식·김영수·신민규 목사가 제7기 총회 감독



으로 취임하는 윤문기 목사에게 합심 축복기도를 했다.

총회감독 윤문기 목사는 취임사에서 "부족한 목사가 교단 감독으로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교단발전과 교회 부흥에 적극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꽃바람 중창에서 국제선교회장 홍미자 사모가 신민규·윤문기 목사에게 각각 꽃바람을 맡겨, 취임하는 총회감독 윤문기 목사가 이 임하는 총회감독 신민규 목사에게 공로패 증정 유서지대 이사대위 김대성 목사가 이유 유

서지대 이사장 신민규 목사에게 공로패 증정 소포기도 경미수 장사(서평대대교회)의 축가 후 안중-나사렛교회 원로목사 류동형 목사·예성 총회장 이상문 목사·나사렛대 총장 김경수 목사의 축사, 기성 총회장 지형은 목사·가나선교회 총회장 유관재 목사·가나선교회총회장 하근수 목사의 영상축사가 있었다.

감사예배는 총무 이용주 목사의 광고와 남서울교회 원로목사 김영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소통의 목회’ 주제

제22차 신바람목회세미나 개최

비전교회와 함께(가)온동본부(회장 김진호 감독)가 주최하는 제22차 신바람목회세미나가 지난 5월 12일(목) 오전 10시 용두동교회(담임 최원선 목사)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의 소통의 목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개회와 앞서 안침에서 회장 김진호 감독은 "비전교회와 일이나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합니다. 비전교회가 살아야 큰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동역자 여러분께 도전과 격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사무총장 원종희 목사의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에서 최원선 목사는 빌 1:6 말씀을 본론으로 "그 분이 완성하신 것임이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본인의 꿈이 될 것이다. 꿈을 크게 가져라"고 강조했다.

제22차 '위드코로나 시대'의 소통의 목회'라는 제목의 강의를 오영진 목사(선교 총무)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세계는 교단들을 위해 활기찬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역의 바탕에 필요한 마태복 23:12'를 소개했다.



중요한 대안인 템페레이킹스를 진행했다. "며, '특히 지금까지 진행해온 정책들은 더욱 현창화, 구체화, 내실화를 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2차는 '능력회: 내가 경험한 비전교회 목회'라는 제목으로 권규환 목사(물류산교회)가 강의를 했다. 권 목사는 "능력 있는 목회는 철저한 예배준비, 새벽기도에 충실, 영혼구원에 관심,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 철저한 관리(영성, 시간, 자기, 자원, 영성) 등 기본에 대한 충실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2차는 예정통합 소속의 고양 번두리교회 김혁 목사가 '번두리교회 선교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에서 김 목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바로 그리스도 교회가 된다. 그때 교회로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배출해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며, "작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규율의 확립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개교회를 따라가며 다른 건강한 교회들과의 연대를 통해 복음전도의 생애를 함께 나누어 가는 전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작은도서관운동본부, 플랜잇코리아와 MOU 체결

교회 내 북카페 통해 다문화 가정에 다양한 혜택 제공

사단법인 한국북지독학회와 전국 작은도서관운동본부 대표 정경호 목사, 정평교회(회장)는 지난 5월 2일(월) 플랜잇코리아 대표 안태환과 윤기문 사회관 회의를 위한 제1차 및 제2차 교역자 교류 사업 운영에 관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사회 다문화 가정을 위한 북카페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체결된 ESO(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첫걸음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북카페에 '플래닛 에스포'를 '플래닛 코리아'로 했다.

작은도서관이 오픈된 플랜잇 직접 방문, 이력자들이 커피 및 제품 관련 바리스타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플랜잇의 모든 직원들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사회 관련 자원에 서 제1기부터 하기로 한 것이다.



북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교회 내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북카페를 중심으로 사별, 교육, 취업, 방, 나눔복지, 상담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카페 작은도서관 운동은 공공도서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전국 지역사회에서 주민 자치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전 국민에게 목사의 기쁨을 제공하는 운동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로 국제 정세 중앙대외국인 가정 건강관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힘쓰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북지독학회(회장)는 그동안 10여 년 간 교회에 다음세대복과 지역소통을 위하여 CDS 작은도서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며 분기 또는 매월 지역 주민이나 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도서·음료 기증은 물론 휴게시설을 무료 제공을 방침이다.

정경호 목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사회에 소외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제2회 아신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기독 인재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장 마련

아신대학교(이하 아신대) 교육연구소와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제2회 아신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총 상금 500만 원)을 실시한다.

이번에 공모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급변하고 있는 미래 교육 환경 속에서 교회와 교회의 대안학교의 교사와 사역자들이 열정과 열의로 만들어 낸 다양한 교육 미디어 콘텐츠와 함께 나누며 격려하는 기회의 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신대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섬길 기독교 미디어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

해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설치했는데, 이처럼 미디어에 관심 있는 기독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교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자유 주제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공모전은 다음 달 6일부터 접수가 진행되며 각 지역의 컨테이너 및 영상모집점 등에서 수상작을 고려 시정한다.

아신대 교육연구소 소장인 맡고 있는 이숙경 교수는 "팬데믹의 상황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지만 기독교교육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은 지속 확장될 전망이다."

특히 메타버스 등 새로운 현상들이 출현하면서 미디어는 기독교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야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교회교육과 대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하하 나날을 위해 귀하게 섬길 미디어 전문가가 세워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공모전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은 아신대 교육연구소(031-770-7780)로 문의하면 된다.

엔데믹 코로나! 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회 원로목사 포럼



사단법인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대표회장 송용필 목사)가 주최하고 사신교회(대표 이예경) 주관으로 지난 5월 20일(목) 오후 서울 종로 5가 소재 한국교회총연합회 2층 강당에서 엔데믹 코로나! 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원로목사 포럼을 개최했다.

이세훈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인사말을 전한 송용필 목사는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한때 열의의 대상이었고, 강령적인 공권력의 통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었다"며 "이제 엔데믹 시대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한 물음과 복음적 전략의 준비가 필요할 때"라고 했다.

이예경 대표의 환영사에서 "요엘서 마지막 때 각 세대가 성령으로 연합할 때, 노년층은 '꿈을 꾸며' 우리 교회가 이루어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세대"라며 "이 혼란의 시기에 한국교회에 취해야 할 지혜로운 전략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목회신학적 관점에서 발전한 신학적 결의와 원로 이영의 목사(천안나눔교회 이사장)는 이성과 각 지역사회를 향한 진정성과 잃어버린 기도의 회복을 주문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다신 비탈길과 멀고 마땅히 할 일을 발견해야 한다. 더 이상 성을 쌓고 들어와 기다리지 말고, 세

상으로 깊이 들어가 먼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지켜보고, 진을 열로 돌려 이웃을 보고, 지역사회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갈 작은 교회를 돌보고 살리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크기와 많음과 더 화려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목회와 아닌 내 목회를 위해 동분서주했음을 고백하고 빠져나와 자신과 본질의 회개가 마땅히 있어야 할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의 되고 성령성과 거룩성이 회복되고 진정한 복음과 예언적 시대 시대를 열어야겠다"고 했다.

이어 교회적 관점에서 발전한 부산 호산나교회 원로 최홍준 목사(국제목장사역위원장)는 본질 회복과 재정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목사는 "교회와 교회라고 성령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갖추고 간단히 건강해지고 흥취하게 되는 것은 담양이다"며 "교회는 주의 몸이고 주님의 몸을 본 공로이다. 그 몸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했다.

아신대학교(이하 아신대) 교육연구소와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제2회 아신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총 상금 500만 원)을 실시한다.

이번에 공모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급변하고 있는 미래 교육 환경 속에서 교회와 교회의 대안학교의 교사와 사역자들이 열정과 열의로 만들어 낸 다양한 교육 미디어 콘텐츠와 함께 나누며 격려하는 기회의 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신대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섬길 기독교 미디어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

해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설치했는데, 이처럼 미디어에 관심 있는 기독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교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자유 주제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공모전은 다음 달 6일부터 접수가 진행되며 각 지역의 컨테이너 및 영상모집점 등에서 수상작을 고려 시정한다.

아신대 교육연구소 소장인 맡고 있는 이숙경 교수는 "팬데믹의 상황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지만 기독교교육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은 지속 확장될 전망이다."

추구하는 시기를 진행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성령성을 표명하는 한편, 교육부 사립대청구 주무관과의 면담을 가기도 했다.

이들은 성령성을 통해 △교육부는 2022년 5월 교육부가 민원 접수한 학교법인 아신에 대한 사립대청구 주무관과의 면담을 가기도 했다. 이들은 성령성을 통해 △교육부는 2022년 5월 교육부가 민원 접수한 학교법인 아신에 대한 사립대청구 주무관과의 면담을 가기도 했다. 이들은 성령성을 통해 △교육부는 2022년 5월 교육부가 민원 접수한 학교법인 아신에 대한 사립대청구 주무관과의 면담을 가기도 했다.



차별금지법·동성애법 제정반대, 충남도 발전과 아산시 발전 위해 기도

“2022년 제5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사단법인)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단법인)아산시민
 족복음화운동본부(대
 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2022년 제5차 민족복음
 화와 나그나 민족을 위
 한 조찬기도회를 지난
 5월 19일(목) 오전 7시
 배방중앙침례교회(담
 임 김병만 목사, 상임회
 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성임회장 박귀환 목사(생명샘동천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표회장 진응용 목사(온양은혜와진리교회)의 환영사가 있었다.

진 무사는 환영사에서 “이 이집 떠난 시간
에 충남도 교회의 지도자 안준호 목사, 총
연 총합회 총회장을 비롯하여 국경을 위해
애쓰시는 홍성, 예산 흥문표 의원과 충남도
당 위원장이며 아산강 이명수의 의원과 김태를
충남도지사 후보와 박경귀 아산시장 후보,
이병하 교육감 후보와 함께 조전자 도회를 갖

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전하고 또 한 때월 기도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모든 회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와 대조되는 점 하나는 지난 5년간 나라의 태도와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하기 위한 서 코로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정책으로 인해 많은 교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여와에게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나의 수간과 함께 여와에게서 살기 시작한다"는 파손의 깨어 있음이 "해독하다" (시 127:1)는 말에서 내어 400여 개의 지도와 많은 중환장들을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 나와 민족을 위해 교민으로 자비를 하여 차별과 불평, 동맹, 권위와 불평, 동맹과 자비를 위해 자비주의주의 수호를 위한 기도회와 합선과 정권체제를 이루어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당부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서 본회 부회장 서석웅 목사(아산성결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 봉독, 상임회장 김병완 목사(배병중안침례교회)의 설교가 이어졌다.

김 목사는 현재 1:8 비율을 본토로 하고 예수의 종이가 될까? 라는 제국의 신념을 배후로 '모든 사람에게의 복과 평화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그의 본토 사역의 원동력은 애초부터 배타는 아니라는 구약의 가르침을 수 있다. 우리 성도의 성령은 내 너를 알고 있기에 와서 애초에 인생을 내 너를 알고 있기에 서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 포인트는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이 주는 것이다. 그러는 삶이 있다. 애초에 우리는 사탄을 포함한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성령 보좌가 준비되어 있다. 애초를 구약으로 믿고 배타도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애초에 수고하고는 간증하는 증인 될 사실을 알아 가는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란다. 애초를 구약으로 믿고 하나님의 재가 되어 영생복락을 주는 천국 교회는 모든 구약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한다." 고 전했다.

이어 회계 과인숙 목사(벤엘교회)의 헌금
기도에 이어 아기연 대표회장 임정대 목사의



후와 흥거전 흥거원흥 흥거장 안국로 목사
의 격려하에 이어 본회 본부장 김승용 목사
(서울대학교)의 회고와 1부 수업을 마쳤다.

이런 2부 수업을 마친 소교로 삼당정주
유자현 목사(영세교회의 사목로 먼저 시국
회복 보고로 흥세 전국교회 통문포의
의원(국)의 흥세 여사들의 정주를 흥거
의 장기 받은 아산시 목회자들의 기도회 할
일이 국의 삼원을 정주하는 세력을 정리하
고 정주 정거의 삼원 국의 통문포의 흥
부회 가자고 했다. 이어 국장원안 보고로
제대 서문원 목사 의원(국)의 흥세 초
과세와 국의 흥거 정주회 의회 할 함은

목 아당의 협조를 얻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자방 선거에서 새 정부의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한다 고 했다.

이어서 후보 인사로 만찬 강연자는 김태을 후보는 오는 선거운동 시작일을 기도로 결심하고 함께 해주시기 간사에게 다룬 윤대영의 공경 철학을 감사히 품고 있다고 하면서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산장자 박경귀 후보의 인사와 도교육강 이병학 후보의 인사기도 했다.

이처럼 3부 기도도 순서로 상암교회 임원석 목사(아산교로교회)의 기원으로 1부 순례단이 대동하고 나날의 미소를 향하여 기도했다.

포프 대위 김윤진 목사(아례교파), 2)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삼일교장 이광발 목사(천교교파), 3) 6.15치화선 사건을 위하여 사모장조소 이철 목사(포교사신학교교파), 4) 청년노발전과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부회장 이광로 목사(신영중앙교회교파), 5)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제정안을 위하여 부회장 구자범 목사(여형장리교회)의 순으로 제목 시권을 가졌다. 이어서 사무장경 정현태 목사(영일교회)의 글과 기별을 읽은 후, **삼일교장조소**에서 서정식 원혜환 조소를 나누며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갖고 초초기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끝났다.

www.thesancheo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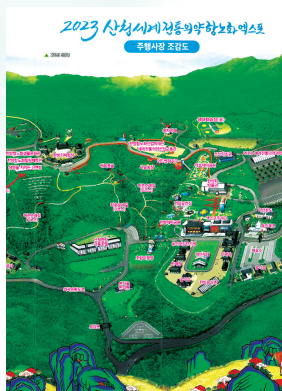
“산청한방가족호텔로 크리스찬 성도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호텔은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향
노화엑스포(2023.9.15-10.19 개최 예정) 주 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산청 유일의 고급객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선 5만평의 허준 동의보감 테마파크를 통해서 산, 숲, 계곡 그리고 무릉도 출렁다리와 다양한 산청의 전통문화, 명상 및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체험과 약선 음식을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체를 건강하게 치유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영성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호텔에는 108실의 다양한 객실 뿐만 아니라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과 다양한 규모의 모임을 주관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의 소연회장과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쾌적한 시설속에서 크리스찬 영성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 호텔 설립이후부터 다양한
기독교 행사 모임을 치러낸 경험을 토대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성
도인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이용시 생초C나 산청C 하차 후 10분내 도착

숙취해소의 새 기준 **간:심**

간;슴,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
- ✓ 간의 휴식이 필요하신 분
- ✓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
- ✓ 면역력 증진이 필요하신 분
- ✓ 스트레스가 많은 분



Q. 왜 코뿔옥돌나물인가요?



1. 세계 최초 특허 보호 작품
2. 산청에서 최초로 육종 성공
3. 독성이 없는 천연소재
4. 면역력 증진 소재

상담 및 구입 문의: 산청하방가족호텔 055-972-7000 총괄이사 하명점 목사 010-4564-9191

속편한 발효효소 **속엔짱**

Q. 속편한 발효효소 속엔짱이 뭐예요?

속엔짱은 **국산 메밀**과 **국산 콩**을 장 유익균으로
순수배양하여 발효시킨 식품으로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동시에 다량함유한 새로운 개념의
신바이오틱스 발효식품입니다.

속편한 발효효소 속엔짱,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래변**을 원하시는 분
- ✓ **혈액순환**이 안되시는 분
- ✓ 소화가 잘 되지 않아 항상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
- ✓ **화장침가물**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

건강한 다이어트에 **속엔짱슬림**

Q.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속엔짱슬림,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
- ✓ 변비없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
- ✓ 요요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갈생 청년 서포터즈’ 1기 발대식 가져

‘같이 살자’ 의미 담아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에 참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지난 5월 30일(월) 서울 시민청 대평홀에서 ‘갈생 청년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갈생 서포터즈’는 신조어 ‘갯생(부지런하고 티의 모범이 되는 삶)’을 변형하여 ‘같이 살자’의 의미를 담아,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약 140명이 신청하여 26개 팀 98명이 서포터즈로 선발됐다.

이날 발대식은 1부 교육과 2부 발대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콘텐츠 제작 관련 교육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원소울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의 격려사, 황태연 이사장의 환영사, 서포터즈 선서식, 임명장 수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했다.

갈생 서포터즈는 발대식 이후 매월 제단과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직접 체험하며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자살예방의날 주간(9월 1일~7일)동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단 황태연 이사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며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살예방 사업을 체험하고 청년의 시각으로 이를 알리는 생명존중문화조성 활동은 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6면에서 이어짐

유엔연합(UN)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합동 조사단을 구성, 러시아군의 학살 행위와 관련한 현장 조사가 불발됐다. 일본도 국제 사회의 비난에 동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민간인에게 해를 끼친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비판한 뒤 “추가 제재의 경우 전체 상황을 지켜보며, 국제사회와 확실히 연계해 일관된 할 일을 확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러시아 정부의 만행에 응징하는 데 적극적일 예정이다.

7. 한국교회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사랑, 세계 평화와 화해를 선포하고 실천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5월 6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부처 민간인 학살 정황과 관련, “끔찍한 잔학 행위”라고 규탄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부처와 여러 도시에서 일어난 집단 민간인 학살은 한국인들도 6.25 전쟁시 당한 바 있다. 70여 년 전 한국 전쟁

시 소련 공산당의 배후 조정을 받은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 저질러졌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당시에 공산당에 의하여 학살당했다. 6.25 전쟁 배후에는 소련 스탈린이 있었고, 그가 죽자 한국 전쟁은 끝이 났다. 유엔군이 인연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북한 압록강까지 진출하여 통일을 눈 앞에 둔 시점 중공이 참전하여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에 치명적 타격을 주자 자유통일을 막은 가해(加害)국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아직도 분단 속에서 북한정권의 핵개발과 미사일 및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결코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저들에게 필요한 물자(物資)와 생필품(生必需品)을 제공해주고 저들과 함께 삼교(三敎) 연대를 결성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내어 독립과 평화를 수립하도록 기도하고 협력(合作)할 것이다.

2022년 5월 25일

심봉을 꾸리는 나비행동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열매를 따는 능력전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내 목숨이 살아 주님 한 분으로 끝까지 지고리니 동네 한 바퀴, 수백리 돌며 주의 복음 전함만 눈에 보이는 열매를 거두는 못했네

이것이 가족세트 박영수 목사 전도말에 놀림을 금지 못했네. 참으로 귀여고 신기하도다 교회 주변 돌아서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네.

반이들이 영접도 따라하고 이름 성명 주소를 말한다. 그리고 써있고 약속까지 하는 전도.

목숨의 맛을 느끼고 모처럼 행복감을 느꼈다. 더할나위 복을 다해서 가족세트전도를 전하고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가족세트전도말에 복음 전함만 전한다면 개척교회와 새교회를 개척하고 영접과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되리라고 확신하네. 인천소망교회 담임 황기택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대표총재
문화선교TV 방송대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8730-2573



“차별금지법 시도 즉각 철회하라”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전북교회연합집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종일)와 전북성서학운동본부(대표회장 박재신)는 지난 5월 28일(주일) 오후 2시 전주시청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전북교회연합집회를 열었다.

연합집회에서는 두 단체가 주관하고 전북14개시 군기독교연합회, 전북장로교회연합회, 전주시장로교회연합회, 전북장로교회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김원평 교수(전남대) 집회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이앤이),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이 발언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다수급 논의의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주민주권기본법,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등은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반하는 것으로, 도내 기독교인들이 약법 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무시하고 성별과



이단사상(異端思想)을 보호하며 전도와 선교를 막음으로 교회를 말살하려는 처사로서, 국가와 사회 및 가정에도 큰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인 성경을 지킬 불발적으로 전파시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차별적 행위이므로 이 법이 통과되면 종교는 물론, 학교, 군대, 직장 등 모든 사회 속에서 갈등과 분열이 나타날 것

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우리는 결코 사회를 수 없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또 “우리의 요구를 간파하면 이와 관련한 정치인, 들의 행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전북 14개 시군 450여 교회 6만 성도는 이런 악법이 제정될 때까지 적극 대항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کمپەیشن 목회자들의 회복 위한 컨퍼런스 마련

‘Restart, 회복에서 시작으로’ 주제로 온라인 개최

컴페션(대표 서정호)은 오는 6월 14일(화)~16일(목) ‘Restart, 회복에서 시작으로’라는 주제로 2022 컴페션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회복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9일간 4대면의 회복 스타디움의

회복 스타디움의 회복에 대해 다룬다.

첫째날에는 고든 매도나드 목사(내려세기의 질서와 영적 성장) 저자가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네 가지 함정’을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그동안의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자기 고백과 함께 목회자를 향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할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cyber.com

상당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초대시

전혜수 // 은혜대진리교회 권사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 성전에 두 개의 늦기둥
오른쪽 기둥 이름은 야-긴
왼쪽 기둥 이름은 보아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한 다윗
순종하여 영광 돌린 솔로몬의 열매

성령께서 좌정하신 놀라운 그곳
성령모신 나의 마음 성전 뒤편...
보혈능력 믿음으로 정결케 하사
상활불문 장소불문 예배처 되니
기이하고 놀랍도다 영광이로다

문양새긴 백합화 의미 안에는
순결해야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아로새겨진 석류 의미 안에는
진실해야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시니
보혈공로 아나고야 어찌 뵈리오....

불의 혀 갈라지던 뜨겁던 그날
온갖 것 부정함을 태우던 그날
심령 안에 성전을 만드시던 그날
갈 2:20로 오른쪽 기둥 세우시고
고후 5:17로 왼쪽 기둥 세우셨네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의 두 기둥(총상 7:20)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고전 3:16)의 두 기둥을 묵상하다.
나의 신앙의 기초석이 된 두 말씀을
다시금 가슴에 보자고 마음을 작는다.

CTS-해피코리아, 다음세대사역 업무협약

교육선교비전구현, 세계의 어린이 교육선교 프로젝트 개발

CTS기독교TV(이하 CTV)와 (사)해피코리아(이하 해피)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고 나아가 세계의 어린이 교육선교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개발·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두 단체는 최근 CTS컨퍼런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고, 다음세대 사역의 확산과 교육선교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인사말을 전한 CTS 감동환 회장은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 속도가 너무 빨라 오는 상황에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사)해피코리아와 함께 연합해 다음세대를 훌륭하게 삼기고 모든 분야에 우리 다음세대들이 세워지길 바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영의 군대를 얻은 것같이 기대고 기대했다.

이에 최영남 이사장은 "다음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지 고민했는데 이번에 CTS와의 연합을 통해 다음세대와 교양들을 잘 삼기길 바란다"며, "CTS에도 큰 열매가 맺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해피광장' 내 이력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 (사)해피코리아는 다음세대에게 더 행복한 유산을 남겨주고자 미래 지도자 육성 정책들을 지원하고, 인류 보편의 기본권인 '행복'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도록 돕는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사설

차별금지법 악법 소지 다분, 제정 막아야

차별금지법 발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반발이 국민들의 반대로 성사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은 그럴싸한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동성애, 동성혼, 전대 성을 통한 문화 마시즘을 실천하려는 것을 감추고 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제정을 알고 있다.

이런 공황하에서도 그런 속내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 반대.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현재 국회에 이 법안을 제정하자는 찬성 형의 의견이 1건 반대의견이 4건이 올라와 있는 것에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곧 국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바뀌거나 조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위원들이 어떤 무리수와 흡수를 쓰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자는 그릇된 소용영주의가 아닌가 의심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제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 법이 제정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인데, 일신(一身)의 재와 인신(人身)의 구속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법안 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자신들을 대표로 뽑은 국민을 무시하며 필박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것으로서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자

북한은 변하지 않는 집단이다. 유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무차별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이다. 그 동안 북한은 3년간 6발의 미사일을 쏘아댔다. 그리고 패마다 문재인 정부는 협상을 재개하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러던 그날 패마다 북한은 남한 정부 당국을 향해서 폭탄 미사일을 쏘아댔다. 기가 찰 노릇이다. 대화를 시도하려고 미사일을 발사했다!

타조와 늑대의 우리들 눈만 뜸이나 찢다. 타조의 노로 비비고 날아다니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어떤 정책으로도 세계는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30년 포용 정책을 펴서 북한을 개편시키고 비핵화를 시키고 시장화, 자유 인권을 가지도록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에는 그 어떤 정책도 그 어떤 합의도 무용지물이었다. 얻은 결론은 북한은 변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것뿐이다. 그동안 한국은 안미경중(安美敬中)이라든가 안보는 미국을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을 의존한다는 박 주검은 출타가 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아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박주검은 중립은 통하지 않는 시대다. 타조가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하고 무차별 폭탄 공격을 하자 여러 년간 군사 중립을 했던 유럽의 나라들이 이 나라도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가차와 원칙을 공유하지 않는 나라는 다터플링 형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머리에 핵을 얹고 있는 한국의 안보는 지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만 사드를 정식으로 채택해서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개선하는 조치를 하려면 중국의 보복을 막아내는 것을 도울 미국과 일본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일이다. 미국과 일본을 의지하고 말하라는 외교는 중국에 대한 굴종 외교만 남게 되는 일이다.

아전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향해서 유석열 정부는 단호하게 규탄성명을 냈다. 그리고 대응차원으로 우리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르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아제아제대대 나이가 굳기나 보다. 아제아제 강하고 강하게 약한 게 북한의 전략이다. 선택 대응해야 한다.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것이다. 죽일 태만 죽여 봐라면서 달려드는 우크라이나를 세계 2위 군사력의 나라 러시아가 전 퇴각한 게 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비열한 살피는 정당한 죽음이 더 낫지 않았을까? 정당한 죽음을 택할 때 살피는 일이다. 아제 당당한 과제를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복한 날에는 기 빼고 고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두 가지기를 하 나미 병행하게 하자 사람이 그의 양에 능히 해 아제 알지 못하게 하겠다" (전 7:14)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집 조 문: 정책위원장 조종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 배성현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 ~ 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재: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www.ucts.org

AG ASSEMBL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 5층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수교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령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랙티브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앙성)	3년 6학기 (140학점)	1.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정의 의사가 있는 자 3. 신의 경역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1점 이상 학점 취득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연구원 인정하는 대외에서 편입하는 자 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 출제(이)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앙고백서(사용지 2개 이내)
- 편입생은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원서 또는 접수: 수시
-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3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 5층 8 (예수교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정 및 기타사항**

- 출입 조 전도사 인정지역 부여
- 출입 조 전도사 인정지역 부여
- 7년 이내 재입학 가능. 재수료료 60%가 발생합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AG ASSEMBL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 5층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및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회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총신, 목회자의 기쁨과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정치, 한국과 세계의 교회와 미션에 잘 준비된 신학자를 배출하여, 인성과 지성을 갖춘 목회자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발음순명, 성령충만
- 복음전파
- 은혜의 사랑으로 복음전파

문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 5층 8 (영평동 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P) 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 Minister of Ministry)	3학기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과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과 졸업자(신학) ● 타 교단 신학과에서 본 교단목회학의 동시 학위를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접수 ② 면접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수시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발령

4. **전형료** ① 전형료: 30,000원 ② 재입학료: 국민은행 061737-04-003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앙고백서(사용지 2개 이내)
- 편입생은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6. **특정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2년제)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로서 종사자를 복임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고, 그리고 성경강의는 목회자 자기개발 강의를 함께 발표 이후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 가타 상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에서 출석 신청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